<영국의 감시법>

UK Surveillance Law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015년 7월, 영국의 코미디언 마이클 맥킨타이어(Michael McIntyre)는 뜻밖에 스파이 소동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청 항공 지원팀(National Police Air Support unit, NPAS)이 길 한 복판에 있는 멋쟁이 코미디언의 사진을 하늘에서 찍어 트위터에 올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는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 지원팀은 즉시 해당 트윗을 삭제했지만 이미 개인 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후였다.

그러나 사실 지원팀은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

인권 변호사 사이먼 맥케이(Simon McKay)는 BBC에서 경찰들이 직업규약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기술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게 된 것인지 설명했다. “간략히 말하자면, 사진을 찍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마이클 맥킨타이어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추정했을 때, 쓸데없이 그것을 게시/발표(publication)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사생활 침해가 맞고, 그렇게 볼 수 있다.”

“런던 경찰청은 정보를 통제하는 곳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이 경우 법을 따르는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CCTV의 시행규약을 어긴 것이다.”

“법원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데도 사진을 자의로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이 트윗은 우리가 아는 한 정보보호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고심했던 부분과 관련된다. 스파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들은 법의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사용자의 행위가 합법 혹은 불법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상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으로 그들이 합의 여부이다. 흔히 후자가 전자를 대신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는 것에 합의했다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당신이 스파이 장비를 불법 혹은 비윤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경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기준은 바로 대상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즉, 화장실이 아닌 사무실을 도청하는 것은 합법인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당신의 집을 도청하는 것은 합법이다. 당연히 본인의 집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 당신이 범죄 용의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의 구현과 공중 보호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라는 개념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화상(畵像, likeness) 혹은 목소리가 녹화/녹음되어 저장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않고 늘 묵시적 합의를 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훈련 및 품질 향상 목적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말은 묵시적 합의를 구하기에 매우 편리한 도구이다. 계속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파이 장비에 대한 영국의 적절한 법률

스파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 혹은 서로 다른 여섯 개 이상의 영국 법(pieces of UK legislation)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1974년 사생활 보호법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특정한 법은 없지만,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대부분 인권법에서 다루어진다.

정보보호법은 지방 의회, 경찰 혹은 은행과 같은 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정보 처리자라면 (사실 대부분의 고용인은 정보 처리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용인들에게 어떻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반드시 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구금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사업장 영업 시간 도중에 발생하는 대화를 합법적으로 녹음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이로써 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용인은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며 대화가 녹음되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지만, 그 대화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헬리콥터로 찍은 마이클 맥킨타이어의 기록을 사용했을 때 CCTV 시행규약과 관련하여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지만 비입법적(non-legislative)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은 맞다. 폐쇄회로 네트워크와 같은 특정한 장비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행규약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의 무선전신법은 주의를 요하는(discreet) 녹음기, 혹은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사실 대상보다는 스파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이하다는 것이다.

합법적 사업 관행 규제법은 피고용인의 행동, 주로 컴퓨터나 전화 기록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있는 부분은 주로 피고용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과도하게 감시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 국세청, 혹은 정보 기관과 같은 공공 단체는 해당 기관이 대중의 정보를 기록 감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수사력규제법의 대상이 된다.

몰래카메라와 영국법

특정한 상황의 경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국 법에 의해 몰래카메라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법과 인권법은 언제 녹화/녹음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합법이다.

다음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다.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합법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사업장 혹은 거주지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인 소유의 집 혹은 사업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

대상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무실은 괜찮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에는 안 된다.

타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본인 사유지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당신의 CCTV 카메라가 정확히 이웃의 침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은 인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CCTV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장소를 녹화하는 모든 CCTV 시스템은 반드시 정보관리청 (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CCTV 시스템은 반드시 경비원의 신호가 있어야만 작동될 수 있다.

공공 CCTV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그 어떤 기록에 대해서라도 보안 및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실패한 경우, 예를 들어 CCTV 기록의 DVD를 지키는 이 없이 방치하거나 유투브에 업로드했을 때는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합법적인 범죄 조사의 일부가 아닌 경우, CCTV 화면에 잡힌 이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기록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https://www.onlinespyshop.co.uk/uk-surveillance-law-the-essential-guide/